

자료제공: 2023. 8. 7.(월)

이 보도 자료는 배포 즉시 보도할 수 있습니다.



보도 자료

담당 부서: 복지정책실 자활지원과

자활지원과장 김경원 02-2133-7480

자활정책팀장 조수민 02-2133-7482

자활지원팀장 기재일 02-2133-7489

조재형 02-2133-7483

이신옥 02-2133-7491

이진산 02-2133-7484

사진 없음 사진 있음 쪽수: 6쪽

서울시, 노숙인·쪽방주민 등 폭염 대비 특별보호대책 지속 추진

- 쪽방촌 ‘밤더위 대피소’ 운영 및 ‘여성 전용’ 무더위쉼터로 한시적 운영
- 서울역광장, 쪽방촌 안개분사기 설치, 제빙기 비치, 쪽방촌 에어컨(이동형, 창문형) 추가 설치
- 무더위 쉼터 15개소 운영, 이동목욕차량(3대) 운영 ... 남대문권역, 을지로권역, 영등포권역
- 온열질환 등 건강관리 위한 거리상담반 및 방문(간호)상담반 운영

폭염 위기경보 “심각” 단계로의 상향 등 연일 이어진 폭염 가운데, 서울시가 ‘폭염’도 재난 상황으로 엄중히 인식하고 폭염 피해에 노출되기 쉬운 노숙인, 쪽방주민 등 폭염 취약계층을 위한 특별보호대책을 강화 추진하는 등 시민 안전관리에 총력 대응한다.

시는 폭염에 대비해 (기존) ▲ 무더위 쉼터 및 ‘밤더위 대피소’ 운영 ▲ 거리상담반 및 방문(간호)상담반 운영 (강화) ▲ 이동목욕차량(2대 → 3대) 운영 ▲ ‘안개분사기’, ‘제빙기’, ‘에어컨(이동형 및 창문형) 추가 설치’ 등 추진 중이다.

< 쪽방촌 ‘밤더위 대피소’ 운영 및 여성 전용 무더위쉼터 한시적 운영 >

- (기존) 폭염취약계층인 쪽방주민들을 위해서는 ‘밤더위 대피소’를 운영 중이다. ‘밤더위 대피소’는 3월부터 운영 중인 ‘쪽방촌 동행목욕탕’ 7개소 중 3곳을 선정하여 운영 중이다.
 - (기존)쪽방 주민은 7~8월 동안 밤더위 대피소에서 목욕과 잠자리를 동시에 이용할 수 있으며 7월 31일까지 475명의 쪽방주민이 이용했다.
 - (강화)쪽방 주민은 7월에는 기존 20일까지 사용할 수 있었던 밤더위 대피소를 8월부터는 빈자리가 있을 경우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.

- (강화) ‘여성 전용’ 무더위쉼터 한시적으로 8.7(월)부터 운영한다.
 - 여성 쪽방 주민이 다중이용시설에서 안전 등 이유로 수면을 꺼리는 것으로 추정됨에 따라 ‘여성 전용’ 무더위쉼터 장소를 발굴, 한시적(8.7.~9.15.)으로 운영한다.



< 서울역광장, 쪽방촌 안개분사기(쿨링포그) 설치 및 쪽방촌 에어컨(이동형, 창문형) 추가 설치 >

- (강화)서울역희망지원센터와 쪽방촌(창신동, 서울역)에 안개분사기(쿨링포그*) 5구간을 8월에 설치할 계획이다.
 - 현재 안개분사기는 쪽방촌 중 영등포 1구간, 돈의동 4구간, 남대문 1구간이 설치되어 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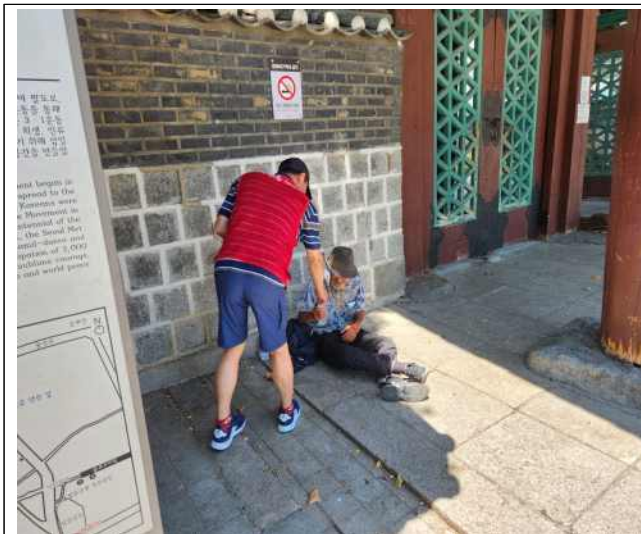


- 안개분사기는 정수 처리한 물을 특수 노즐을 통해 빗방울의 1천만 분의 1 크기의 인공 안개로 분사하는 것으로, 더운 공기와 만나 기화하면서 주위 온도를 3~5도가량 낮춰 폭염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와 서울역희망지원센터 1구간 신규, 쪽방촌 4구간을 추가로 설치한다.
- 또한 서울역희망지원센터에 제빙기를 추가 설치하여 얼음을 상시 비치할 계획이다.
- 또한 쪽방촌에 (이동형,창문형) 에어컨을 추가설치 중이며 복도에 설치된 에어컨 바람이 닿지 않는 가구 등에 별도로 설치할 계획이다.
- 현재, 쪽방촌 복도에 에어컨을 설치하여 운영 중이나, 냉방을 위해 방문을 계속 열어 두게되어 생활이 불편이 있는 가구나 복도 에어컨 바람이 닿지 않는 가구 등이 있어 이동형 에어컨 등을 별도 지원하기로 했다.
- 특별히, 장시간 문을 열어두기 어려운 여성 단독거주인 경우 안전고리 100개를 조속히 설치할 예정이다.



〈 노숙인 쪽방주민 안전하고 시원한 여름나기를 위한 거리(방문)상담반 및 이동목욕차량 운영 〉

- 노숙인과 쪽방주민을 위한 거리순찰도 지속 실시한다. 혹서기 응급 구호반(51개조 120명)이 일 4회 이상 노숙인 밀집지역(서울역, 시청·을지로, 영등포역)을 순찰하며, 생수 등 구호품을 배부하고 응급환자 발생시 의료서비스와 연계 중이다.
- 거리노숙인 지원현황('23.7월말)
 - 1,192건(생활시설 입소 240건, 병원연계 755건, 주거지원 197건 등)
- 거리상담시 구호물품 지급('23.7월말)
 - 69,978개(생수 33,421병, 마스크 29,530개, 식료품 6,931개, 기타 96개)



거리상담반 운영



건강취약자 관리

- 또한 폭염특보 발령시에는 무더위쉼터 이용을 적극 권고하고 있으며, 무더위쉼터에는 샤워시설도 완비되어 있다. 또한 이동목욕차량 확대(2대 → 3대)운영하여 무더위를 잠시나마 날릴 수 있는 이동형 샤워시설도 지원한다. 한편 쪽방촌에는 특별대책반(10개조 20명)이 일 2회 이상 쪽방촌을 순찰하며, 쪽방간호사가 방문간호를 통해 기저질환자 등 건강취약자 150명을 수시로 관리하고 있다.

○ 무더위쉼터는 15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, 연인원 76,122명(일 평균 1,269명)이 이용하고 있다.

- 노숙인 무더위쉼터(10개소) : 종합지원센터(3), 희망지원센터(2), 일시보호시설(4), 비전트레이닝센터(1)
- 쪽방촌 무더위쉼터 (5개소) : 쪽방상담소별 각 1개소

○ 이동형목욕차량 지원(3대, 6개소)하고 있으며, 연인원 489명(일 평균 16명)

- 이동 목욕차량 (6개소) : 을지로입구, 청량리역, 영등포역, 고속버스터미널, 용신역, 남대문



무더위쉼터(노숙인시설)



무더위쉼터(쪽방상담소)



이동목욕차 운영



건강취약자 특별관리(쪽방상담소)

- 이수연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“무더위가 지속되고 있어 여성 전용 무더위쉼터 설치 완료, 서울역희망지원센터와 쪽방촌에 안개 분사기 추가 설치, 쪽방촌에 이동형 및 창문형 에어컨 추가 설치 등 강화대책을 추진하고 있다. 더불어 무더위쉼터 운영, 쪽방촌 밤더위 대피소 운영, 거리(순찰)상담반 운영 등 기존 지원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노숙인시설 및 쪽방촌에서 폭염사고가 발생 하지 않도록 세심히 살피고 지원하겠다”라고 전했다.